

과연 사람들은 언제쯤 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대단한 결단이나 행동보다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소한 일에서 인류 평화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런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브라함이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두 민족이 종교와 정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행한 역사를 거듭해왔다. 지금은 예루살렘

을 동서로 갈라놓은 장벽만큼이나 마음 속 장벽 또한 너무 높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거창한 명제에 앞서, 우선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이-팔 대학생 20명이 세계 평화축전에 참가자 8월 26일-9월 6일 한국을 찾았다. '세계평화축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특히 9월 3-4일 고양 흥국사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하며 민족간 화해를 모색했다.

미움 버리면 세상은 연등



이-팔 대학생들이 서로의 발우에 음식을 떠주고 있다.



연등 제작을 체험하는 이-팔 대학생들.



차담을 나누며 한국불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학생 흥국사서 템플스테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9월 3일 오후 흥국사주지 대오. 외국인 대학생 20명이 범종각 옆을 지나 사찰 안으로 들어온다. 자유분방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선글라스를 낀 눈으로 사찰 단청이며 탕화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모습은 흥국사가 매주 개설하는 주말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려는 보통의 외국관광객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몹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열흘 전만 해도 이들 사이에는 서로 눈길을 주거나 말을 건네는 게 어색할 정도로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바로 지금도 서로를 죽고 죽이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노아 씨(이스라엘 대학생)는 "팔레스타인인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다"며 "한국에 오기 전까지 서로 만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은 제3국에서라도 이스라엘인을 만나는 일이 고통 받는 민족에 대한 배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국을 찾아왔다 한다.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고 있는 본국에 이런 사실이 잘못 알려질 경우 지하다 조직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마이클 씨(팔레스타인 대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이-팔 분쟁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졌다.

#"발우공양에 무슨 평등·청결함이 있지?"

3일 저녁 흥국사 설법전. 이스라엘 대학생 10명과 팔레스타인 대학생 10명이 수련회복을 같이 입고 전통 발우공양을 체험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있다. 5분이 지났을까, 발우를 풀어놓지도 못했



"미움을 버리고 마음속 등불을 밝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이 연등을 들고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탑돌이를 했다.

발우공양 체험에 대해 실험 양(팔레스타인 대학생)은 "발우공양에 무슨 평등정신과 청결함이 담겨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비드 씨(이스라엘 대학생)는 "2천년을 끌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다름도 상대방을 결단 보고 판단했기에 벌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며 "점심 식사를 한 후 수없이 음식 쓰레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깨끗하게 다 먹는 발우공양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총 대신 희망의 연등 들고

3일 저녁 9시. 이-팔 대학생들은 연등제작을 마치고 약사전 앞 석탑 앞에 섰다. 연등을 켜고 탑을 돌며 이-팔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시간. 각경 스님이 "이 순간 미워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위해 불을 밝혀자"는 제안에 따라 20명 이-팔 학생들이 석탑을 돈다. 총 대신 희망의 연등을 든 것이다. 산사의 저녁은 너무나 고요하고 연등을 든 사람들 사이에는 나와 네가 없다. 우리편과 적이 없다. 환한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눈치다. "미워하는 마음을 쉬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요아프 씨(이스라엘 대학생)는 "팔레스타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보니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았다. 상대 입장을 생각한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친구"라며 중동의 평화를 기원했다.

아미르 씨(팔레스타인 대학생)는 "연등을 들고 탑을 돌며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싸운 이유를 찾아 봤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처음 평화란 것을 맛 봤다"고 말했다.

9월 4일 오전. 울력을 마친 사기 씨(이스라엘 대학생)가 약사전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섰다.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한다.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인이 '타종교의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이 너무나 의외였다.

사기 씨에게 무슨 이유로 오체투지를 했는지 물었다. "내면의 평화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본질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오체투지를 하든, 성경을 들든, 고란을 읽든 종교인의 길은 모두 같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에서 같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절을 했다." 또다시 합장하는 사기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고양 흥국사=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세계평화축전 참가자 20명...다도·발우공양 통해 마음 열어 함께 희망의 연등 만들고, 오체투지하며 중동 평화 기원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4개국 초청 평화토론회 열 것"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세계평화축전의 일환으로 8월 26일~9월 5일 열린 코파이스(KOFAIS: 한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약자) 평화친구 행사에 참가한 텔아비브대학 총학생회 부회장 아이비브대학 총학생회 부회장 트포프스키 부회장의 소감이다.

보이즈 부회장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친구로 사귀게 됐다"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을 계기로 삼아 내년 8월 텔아비브대학에서 한국 북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초청한 평화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이-팔 대학생들이 9월 1일 남북 분단의 상징인 도라산역에서 중동분쟁의 해결 방법을 놓고 진행한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

보이즈 부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당사자들이 만나 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북한도 자주 만나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한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엔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 1 그을음이 없습니다.
- 2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 3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 4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 5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오.

- 1호 59cm x 18cm 약 연소시간 72시간 이상
- 2호 59cm x 13cm 약 연소시간 50시간 이상
- 3호 47cm x 14cm 약 연소시간 30시간 이상
- 4호 47cm x 9.5cm 약 연소시간 24시간 이상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이상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